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사모 시장 우려, 지정학적 긴장감 확대 속 하락 마감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9일(목) 미 증시는 블루아울 캐피탈 환매 중단에 따른 사모 대출 시장 우려 재부각, 미국-이란 지정학적 긴장감 확대 및 유가 급등 등이 투자심리 위축시킨 가운데 금융주, 기술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가중된 결과 3대 지수는 하락 마감 (다우 -0.54%, S&P500 -0.28%, 나스닥 -0.31%)

미국의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탈이 환매와 부채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총 1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고, 운용펀드 1개에 대한 환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모 대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 특히, 최근 AI 버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블루아울 캐피탈과 같이 IT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집중된 사모대출 업계에 추가적인 타격 우려가 점증. 현 시점에서는 블루아울 개별 이슈로 제한되고 있으나, 기업대출 부실화 속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단기적으로 증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

한편, 미국-이란 지정학적 리스크도 시장 투자심리를 압박하는 요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10일의 시한을 제시하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배치하는 등 핵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렇듯 미국-이란 전면전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 원유 수출 차질 이슈가 불거지며 WTI 기준 유가 66불 기록하며 전고점을 상회한 점도 투심을 위축시키는 배경. 다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부담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유가 상승 장기화 → 인플레이션 재점화 시나리오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 10일을 제시하며 외교적 해결 여지를 남겼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며, 결국 미국-이란 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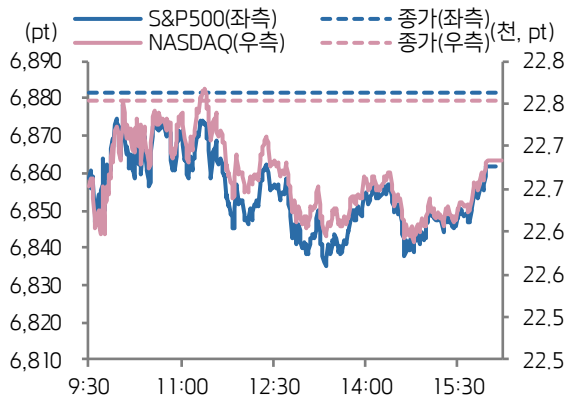
AI 버블, 사모 대출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에 변동성을 유발할만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말 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 한편, 다음주에는 엔비디아 실적(25일)이 메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 최근 AI 버블 이슈가 수시로 제기되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가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주목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설 연휴 기간 특별한 대외 이벤트 부재했다는 점이 안도 요인으로 작용하며 반도체, 증권 등 업종 전반에 걸쳐 매수세 유입되며 코스피는 5,600pt선 돌파. 한편,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가시화 속 외국인, 기관 자금 동반으로 유입되며 코스닥도 급등세로 마감(코스피 +3.1%, 코스닥 +4.9%).

금일 국내 증시는 사모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동성 요인, 전일 급등분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기 매수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 후반 갈수록 상방 압력 강해질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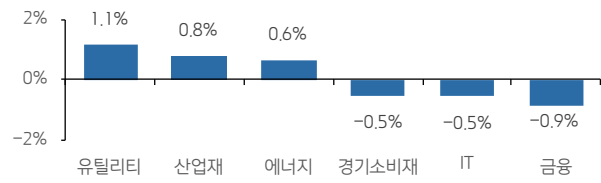
최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독자적인 상승 동력(실적 모멘텀, 유동성, 정부 정책 등)을 근거로 미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과거와 달리 약화되어있는 상태. 전일 출현한 사모시장 이슈, 지정학적 불안감 등도 본질적으로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훼손할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이슈가 단기적으로 증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한다면 저가매수의 기회로 인식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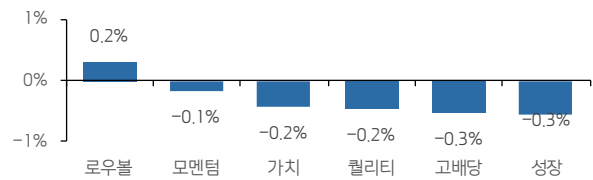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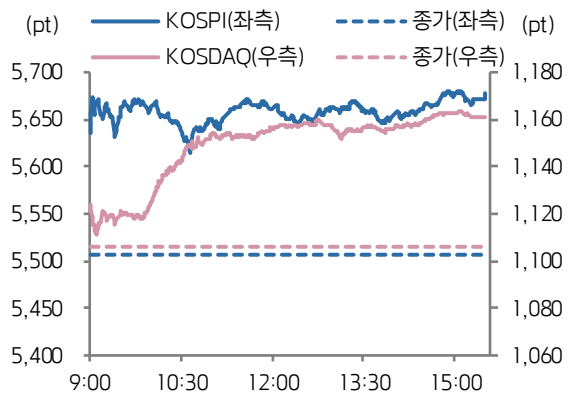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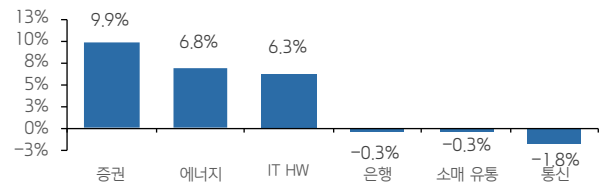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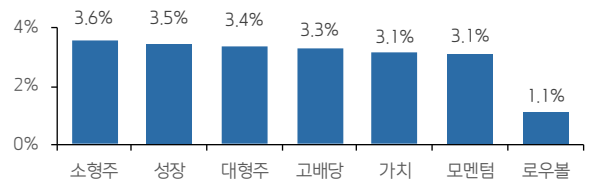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60.55	-1.44%	-4.16%	GM	81.47	-2.63%	+0.18%
마이크로소프트	398.31	-0.32%	-17.64%	일라이릴리	1,023.22	+0.26%	-4.79%
알파벳	302.85	-0.16%	-3.24%	월마트	124.87	-1.38%	+12.08%
메타	644.78	+0.24%	-2.32%	JP모건	308.05	-0.24%	-4.4%
아마존	204.86	+0.03%	-11.25%	엑손모빌	150.97	+0.19%	+25.45%
테슬라	411.67	+0.09%	-8.46%	세브론	184.78	+0.49%	+21.24%
엔비디아	187.90	-0.04%	+0.75%	제너럴일렉트릭	124.87	-1.4%	+12.1%
브로드컴	333.99	+0.14%	-3.5%	캐터필러	760.53	+1.14%	+32.76%
AMD	203.37	+1.62%	-5.04%	보잉	233.71	-2.18%	+7.64%
마이크론	417.26	-0.88%	+46.2%	넥스트에라	91.64	+0.5%	+14.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5,677.25	+3.09%	+34.72%	USD/KRW	1,448.90	+0.3%	+0.65%
코스피200	840.24	+3.15%	+38.66%	달러 지수	97.84	+0.14%	-0.49%
코스닥	1,160.71	+4.94%	+25.42%	EUR/USD	1.18	-0.08%	+0.23%
코스닥150	2,041.20	+7.32%	+31.92%	USD/CNH	6.90	+0.09%	-1.11%
S&P500	6,861.89	-0.28%	+0.24%	USD/JPY	155.06	+0.16%	-1.05%
NASDAQ	22,682.73	-0.31%	-2.41%	채권시장			
다우	49,395.16	-0.54%	+2.77%	가격	DTD(bp)	YTD(bp)	
VIX	20.26	+3.26%	+35.52%	국고채 3년	3.176	+3.6bp	+22.5bp
러셀2000	2,665.09	+0.24%	+7.38%	국고채 10년	3.585	+2bp	+20bp
필라. 반도체	8,173.30	-0.5%	+15.39%	미국 국채 2년	3.466	+0.6bp	-0.7bp
다우 운송	19,494.01	-1.58%	+12.31%	미국 국채 10년	4.071	-1.1bp	-9.6bp
상해종합	4,082.07	-1.26%	+2.85%	미국 국채 30년	4.703	-0.3bp	-14.1bp
항생 H	9,070.32	+0.42%	+1.76%	독일 국채 10년	2.743	+0.4bp	-11.2bp
인도 SENSEX	82,498.14	-1.48%	-3.19%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6,059.62	-0.72%	+4.63%	WTI	66.43	+1.9%	+16.1%
MSCI 전세계 지수	1,049.69	+0.7%	+3.46%	브렌트유	71.66	+1.86%	+17.76%
MSCI DM 지수	4,541.48	+0.74%	+2.51%	금	4,997.40	-0.24%	+14.26%
MSCI EM 지수	1,560.88	+0.33%	+11.14%	은	77.63	+0.05%	+9.96%
MSCI 한국 ETF	135.21	+1.72%	+39.08%	구리	573.85	-1.11%	+0.99%
디지털화폐				BDI	2,063.00	-1.53%	+9.91%
비트코인	67,005.48	+1.06%	-23.55%	옥수수	436.50	-0.06%	-2.62%
이더리움	1,947.54	+0.33%	-34.6%	밀	569.25	+3.03%	+9.79%
				대두	1,156.50	+0.65%	+9%
				커피	285.40	+0.09%	-14.3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월 1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